

반인권반민주 반평화반통일 반통일전쟁

최근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공중과 해상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연합훈련들에 매달리다 못해 연합수작전훈련까지 벌이며 대결각기를 부리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6월 예만도 일본 오키나와 주변 공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북선박나포 및 검색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미국에서 참수특수작전연합훈련을, 태평양에서는 대규모함정기동훈련을 벌였다.

또한 7월에도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림팩》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전력을 참가시키고있으며 8월과 9월에도 《한미일세일정보보련, 항공전투연합훈련》 등에 참가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적대외정책과 야심야망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극히 무모하고 무분별한 군사적대결관판이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광란적인 북진전쟁책동을 그 무슨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야말로 철면피, 파렴치의 지나친 것이다.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은 전쟁 구좌를 방지하고 존엄과 국권수호를 위한 당위적인 자위적권리이다.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더우기 저들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삼고 무력충격과 전쟁발상장에 열을 올리면서 상대방의 자위적권리를 《도발》로, 《위협》으로 걸고치는 것이야말로 철면피, 파렴치의 극치로서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다.

최악의 놈 겁부터 먹는다고 《북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망발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저들의 대결책동으로부터 오는 근심국민의 집중적인 발로이며 공화국무력의 절대적힘과 군사적강세에 기적한자들의 불안과 공포의 발작중세이다.

물건대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과 《헌법타격》을 쉼쳐대며 미국의 핵전략자산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발상장에

을 그칠새없이 벌리면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 낯뜨겁지 않은가. 명백히 말하건대 도발과 위협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고 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들은 그 형식과 규모가 어떠한, 그 어디에서 벌리든 철두철미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예비연습이다.

현실은 공화국이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강화하고있는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준다.

강대국, 정면승부는 공화국의 뚜렷한 립장이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거들어지는 경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다못해 비참한 말로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김철성

# 흥심이 들여다보이는 《신북풍》 물이

최근 윤석열패들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발생하였던 예민한 사건들을 들추어내면서 《신북풍》 물이에 광분하고있다.

윤석열 자신이 《천안》호마 크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돌아치고 서해무장총돌사건과 《천안》호사건, 연평도고격전 또는 군장병들의 유가족, 폐간병들과의 오찬농움에 이어 《제2연평해전승전 20주년 기념식》이라는 광대극까지 벌려놓은 것이 그러하다.

한편 보수패당은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해상공무원파살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정보공개를 떠들고 지어 이진 《정부》가 북에 무엇을 주지 않았는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전 《정권》을 북추종세력으로 몰아가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추악한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신북풍》 물이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있었던 군사적총돌사건들로 말하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일으킨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군사적도발로서 동족대결과 모략에 이끌린 난자들의 추악한 본색과 그 비참한 말로만을 보여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 그때의 사건들을 《북의 도발》로 외치고도 지어 《승전》으로 둔갑하는 놀음까지 벌려놓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아닌가. 두말할것도 없이 공화국

에 대한 적대외, 대결외식을 고취하여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윤석열패당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무슨 《북도발》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미전락사자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위한 비렬한 술책인것이다.

물어켜보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화국과 련결된 사건을 조작하고 《북풍》을 일으켜 반대파들을 탄압하는데 리용하는것은 역대 보수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천안》호사건만 해도 그

했다.

당시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대외정책에서의 총파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리명박패당이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천안》호침몰이라는 희세의 광대극을 연 출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이 가져온것은 북남관계의 완전한 파탄과 남조선 집권세력의 더 큰 통치위기에

자극을 주었다.

지금 윤석열패당이 그 방식대로 《신북풍》 물이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고있지만 결코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패당이 《신북풍》 물이에 광분하면 할수록 더더욱 극심한 집권위기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남조선권통계의 울분 -

# 《세상을 바꾸자!》

최근 남조선에서 민주로총이 반 《정부》투쟁의 도수를 련일 높이고있다.

얼마전에도 민주로총은 윤석열패당의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지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조선 각지에 집결한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설자들은 살인적인 물가폭등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요구가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련법개정, 공공기관인양화추진으로 재벌들과 기업들의 이익만 지키는데 급급하고있다고 하면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연장 중단, 비정규직철폐, 차별없는 노동권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무더위속에서도 《물가폭등 못살겠다, 윤석열이 책임지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개와 저지하자》,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통령실》 주변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지금 민주로총은 7월중순에는 20만여명이 참가하는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총의 총파업을, 8월에는 8.15를 계기로

《전국로총대회》를, 9월에는 민주로총산하 공공운수, 보건 의료로조결의대회를, 10월에는 대규모총파업을 벌리려는 계획을 련이어 발표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생존권, 노동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은 천재법정가, 반노동정책일변도로 나가는 윤석열패당에 대한 상당한 항거이다.

지금 윤석열패당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근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였는가 하면 노동시간을 개혁하는 등 로골적인 천재법정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와 노동자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로동계의 최저임금인상요구를 사실상 배척하였다.

하여 로동자들속에서 물가는 6%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삭감을 의미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윤석열패당이 첫 《민생대책》으로 내놓았던 《시장친화적 물가관리》라는것도

사실상 천재법정정책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 시정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부자감세》를 통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시장친화적 물가관리》로 포장한것이다.

이미전에 윤석열패당은 부자감세, 천재법정적인 경제정책이라는것을 내놓으면서 《법외세 감세》는 《민간주도성장》으로, 《부동산보유세 감세》는 《주거안정》, 《주식양도세 유예》는 《금융혁신》으로 포장한바 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이런자들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율바른 그 무엇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것은 책의 종자에서 싹트기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로동자들이야 죽든말든 재벌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윤석열패당의 반인민적정치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의 생명과 처지가 날을 따라 더욱 버랑골로 물릴것은 불보듯 변하다.



# 민심의 규탄을 받는 《식물국회》

남조선에서 한달나 마 공백사태를 지속하고있던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로 여야당이 전격합의했다고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여야 당파들은 무려 30여일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선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각종 위원처리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쟁을 벌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중대범죄 수사청설치론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장을 맡고나섰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들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진행한 두차례의 협상에서 서로 라협정을 찾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패들이 7월 7일 《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위협한것으로 하여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수문제, 《정부》의 경찰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고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장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수문제, 《정부》의 경찰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고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 《대화》타령



요즘 남조선항간에 《처음이지》라고 하는 유행어가 나돈다고 합니다.

집권자 윤석열이 오만방자하게 높아지는 자기 처의 행실과 관련하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사...》라고 했다더니 아마 그 말에 대한 풍자인 모양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집권하기 이전에 윤석열이 세상사람들이 처음 듣고 처음 보는 낯선사람의 말과 망측한 꼴로 얼마나 큰 비웃음을 샀는지.

《주 120시간근로제》, 《순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돈없는 사람은 불쌍식품이다》... 그래서 《국회의원》것들에게 《입마개 쯤 해줘라》고 하였지만 윤석열은 그러 거나말거나였습니다.

허바다만 제멋대로 노는것이 아니라 머리, 다리로 세상에 처음 보는 제가다려서 《도리도리음》, 《떡벌님》, 《죽벌님》 등 처음 듣는 부실한 청호가 따라다녔습니다.

집권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에 빠져 청와대를 《탈출》한 것도 처음, 집권한지 나흘만에 술복에 빠져 《술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인것도, 애완용개까지 끌고 《대통령》사부실을 돌아치는 너넨네와 사진찍거나 하여 《한가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은것도 남조선의

군사대국인 공화국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망언을 집권하기 전부터 늘어놓은것도 처음 보는 개기입니다.

천년속적인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며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 저들 《정부》가 하겠다고 벌 벗고 나선것도 《대통령을 처음 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모든 면에서 최악을 기록한것은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민족반역자, 파썸세력자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리승만은 《야야대통령》으로 해외로 쫓겨가 무덤속에 들어갔고 《유신》독재자는 심복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했으며 광주대학살의 원흉 전두환은 꿰저서도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고 물결레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명박, 박근혜역도 감옥에 처박혔다가 갇힌 기어이나 각계층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달픈 운명의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는 저주와 규탄속에 이제 윤석열이 또 어떤 추악한 종말의 기록을 세우겠는지, 지금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에게 침을 뱉으며 말합니다.

《저런 놈 처음이지》

김정혁

## 《처음이지》

봐서》 그랬을가요? 아닙니다.

윤석열이 선임자들보다 훨씬 더 추악한 독재자,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이라는것은 집권한지 두달도 지나나마한 사이에 벌써 파썸적인 《검찰공화국》이 살기엔 실체를 드러내주고있으며 남조선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화되고 이 땅에서는 핵전쟁 위협이 날로 더욱 현실적인것으로 되어가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속들과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고 하는것이다.

이미 윤석열은 집권하기 전부터 《한미일군사동맹》이 능하며 유사시 일본군이 조선반도에 들어올수도 있다》고 하면서 투등천일매국노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어 겨

를어번지고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일당은 민심은 아랑곳없이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에 계속 발라맞고있으며 이에 일본은 더욱 오만방자해져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혼시하고 독도와 관련해서도 저들의 땅이라고 생떼를 쓰

남조선에서 윤석열의 친일사대매국행위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은 《한미일정상회담》이라는데서 일본것들에게 관계정상화를 여결하는 추태를 부렸으며 미국산전의 요구에 따라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의 군사안보협력체계를 합의하였다.

천년속적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할수 없게 제정의 길까지 열어주는 매국배족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누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이쳐온 범죄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망 70여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과거죄악에 대해 털끝만한 반성도 사

최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력사의곡을 일삼고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등 재침야망현에 열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어 친일공노할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사죄하지 않으면서 오

려려 웃은 험담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있다.

이런 범죄국가, 민족의 철천지원수에 머리 조아리며 사죄하라고 지내자고 구걸하고있으니 얼마나 추악한 반역행위인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오늘도 섬나라족속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이 활화산처럼

고있다.

섬나라의 만고죄악을 덮어주고 제정의 길까지 열어주고 있는 윤석열과 같은 매국적대면에 천년속적이 일장기를 휘날리며 남조선의 땅과 바다, 하늘을 휘젓고다니는 날도 멀지 않게 되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윤석열패자들이 섬나라족

레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사실들은 현 남조선집권세력야말로 을사오적을 풍가하는 친일매국집단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한일관계악화의 근원을 외면한채 급진외교에 빠져있다》, 《일본의 야심을 채워주는 굴욕행위》, 《벼속까지 친일로 물

## 을사오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 석장의 사진이면 충분해

망신이로구나 일 잘한다는 《대통령》 이런 사진은 왜 찍었을까 은 세상에 놀고먹는 저능아로 락인찍혔네

이번에도 얼마나 《수고》했나 비록 집단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었다고 외세의 총알바람을 자청했다고 초청이 아니라 상전의 호출을 받고갔다고 세상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외국행각기간에도 분초를 쪼개가며 일했다지만 사진을 보며 사람들 머리를 기웃기웃 글썩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등에서 안새라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대통령》은 앉아 그 무슨 문서를 들여다 보고 《령부인》은 뒤집지도 굴어보고 꼭 소학생이 선생담에서 시험받는듯싶네

그 무슨 업무를 보고있다는 사진 컴퓨터에는 빈 화면뿐이니 차라리 종소리게임을이라도 펼쳐놓고 찍으면

의젓한 모습도 있네다 쓰파에 앉아 문건을 보는 사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건은 빈종이장 아불싸 신문이라도 들고있을것이지

그러니 세상사람들 웃으며 조소하지 -홍배도 바로 못내는 동네바보형수준 -보여주기용 해도 리치에 맞게 해야지 -윤석열이 일하는척 하다 왔다 -수행원이 《대통령》의 반대파인 모양이다

혹을 때려다 하나 더 불렀네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광고하자던노릇 그만에도 부메랑되어 무능한 《대통령》의 진면모를 발가놓았네

그 망신 수습해보자고 《대통령》비서실은 불탈렸네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이요 기밀상문제로 뭐요 하며 아무리 변명을 해도 누구도 믿지 않아

아무렴 진실이야 어이 감출까 자투리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 아무리 《대통령》 면사포를 씌워놓아도 추한 모습이 달라지랴 석장의 사진이 그 진면모야